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 건강보험개혁안, 마지막 상원 통과만 남아

-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안이 지난 일요일 근소한 표 차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서 하원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상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임.
- 이번 개혁안은 현재 무보험 상태에 있는 3,200만 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빈곤층에 대한 공적건강보험 확대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에서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는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도 추진되는 등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으며, 이번 하원 투표에서도 공화당 의원 전부가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34명의 의원이 개혁안에 반대하면서 219대 21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게 됨.
 -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건강보험업계는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9,4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환자들의 선택권도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하원에서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상원이 아무런 수정 없이 승인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지만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지속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에서 통과한 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수요일, 상원은 최종 승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몇몇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 만약 개혁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또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미 의회 앞에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원들과 실강이를 벌이고 인종 차별적인 비방을 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살해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임.
 - 한편 개혁안에 반대하는 건강보험산업의 주가지수는 개혁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으로 인해 법안 통과 후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Reuter, 3/22, 24)